

#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전북도-전주시, 행안부 주관 사업 공모 선정... 노후시설물 등 100여 개소 IoT 센서 설치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2억원 투입 · 기존 구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과 연계 · 신속한 상황 전파 · 대응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에 공모한 16개 지자체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공모 신청 지자체에 8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도내에는 전

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억 원을 확보,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역사 도심지구지역 내에 있는 노후건축물, D급 시설물, 구조적 결함시설 등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은 해당 시설물에 IoT(계속) 등 디지털 기술로 위험 정보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FMS) 등과 연계해 붕괴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인태 도 도민안전실장은 "전주시의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문문화유산을 간직한 시설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전주시, 나아가 전라북도를 이루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는 안전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전북지역 '첫 명장' 을 찾습니다

23일까지 모집 · 도 일자리경제정책관 우편 · 방문 신청접수  
선정시 기술장려금 1500만원 지원 · 명장 증서 · 현판 수여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도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전북지역 첫 '전라북도 명장'을 모집한다. 지난 2일 전북도는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내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우수 숙련 기술인을 선정·지원하는 '전라북도명장'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며 오늘 23일까지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명장은 기계설계, 섬유제조, 산업안전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중에서 총 3명 이내로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지원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도내 사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다. 특히, 숙련 기술 보유 정도가 높으며 지역 숙련 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술인이 대상이다. 전라북도명장 모집 신청접수는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은 전북도청(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명장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해 선정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전라북도명장 칭호와 함께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연 300만 원씩 5년 간 총 1,500만 원의 기술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출서류와 작성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이 그리는 신산업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숙련 기술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라북도명장 선정을 통해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전 국민 필수 의료 보장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논의

제3차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재단 연석회의 성료...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등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 관계자 참석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1~2일 양일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3차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 원광대학교병원 서일영 원장,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강영석 국장을 비롯한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및 관계자 120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참석해 연석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연석회의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및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의 연계·협력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전 국민의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방안과 공공보건의료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첫날인 9월 1일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기관 및 공공적 민간의료기관의 확충과 활성화 방안'과 '공공보건의료 정책 현안(△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제안,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거버넌스 측면에서 위탁 운영

방안 제안)'에 대한 발표와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둘째 날인 9월 2일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의 역할 강화 및 네트워크'를 위한 자리가 마련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과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통계 업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전북도민의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지도

전북도가 9월 한달간 동물보호법을 위반과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14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산책로, 주택가, 반려견 주이용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반려견 등록 여부 확인과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

부, 아파트·빌라 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에서 반려견 안기 안배 및 패티켓 전반이다. 또한, 23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견 소유자(관리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이에 마당 등 야외 공간, 사람의 출입이 잦은 사무실(영업장)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에 각별히 안전관리에 주의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한다. /김경수 기자

## '우수 인센티브 여행상품' 으로 전 세계에 전북 알린다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상품 공모전에 전북도 1개 상품 선정  
전북 여행 상품... 무주 태권도 · 순창 발효 · 전주 전통문화 담아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문체부·한국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한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상품 공모전'에 1개 여행 상품이 선정돼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약 100여명의 외국인 현장 실사단(모니터링)이 참여하는 사전 답사 여행을 진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전라북도 우수 인센티브 여행은 해외 기업이나 기관의 우수사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일종의 포상 여행으로 50~199명 규모의 중형단체를 유치하는 상품이다. 인센티브 여행은 마이스(MICE)를 구성하는 한 영역으로, 해외 기업이 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고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여

행 경비를 부담하는 포상 목적의 관광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도의 여행상품은 무주, 순창, 전주에서 전통문화 체험을 골자로 하는 1박 2일 상품(상품명 : 휴식과 치유가 있는 K-컬처 체험)이다. 첫날에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태권 공연 관람 및 태권도를 체험한다. 그리고 순창으로 이동해 강천산군립공원에서 단체별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웰니스 프로그램과 숙박

한다. 다음날에는 순창 발효소스 토폴과 푸드 사이언스관을 관람한다. 그리고 남은 오후 일정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체험과 골목길 산책 등을 즐기며 1박 2일을 마무리한다. 전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라북도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한국을 대표하는 태권도와 한류문화 등은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여행상품으로 가치가 크다"며, "내년에는 해외 기업이나 기관의 포상여행단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전북도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2일 더메이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시군 관계자 메타버스 협의회 회원사 등 산하 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메타버스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전북도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최용석 원장은 과거부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위한 헤리티지 투어리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대구

테크노파크 윤세영 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최창석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전라북도가 작년 11월에 메타버스 협의체를 발대 한 후 100여 원 규모의 과거부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이룬 것은 여러 기관의 협조 덕분이다"며, "메타버스가 전북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